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곤한 내 영혼(464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466장)	다 같 이
조용한기도	Prayer	다 같 이
찬 송	Hymn 13	다 같 이
기 도	Prayer	서정길 권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창세기 12:1-3	인 도 자
설 교	복은 쌓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489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 기도 : 노용녀 권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일1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2부 예배	**오후 3시(예정)**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예정)**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회사역	**이진우 목사(Rev. Jin W. Lee)**
행정사역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선교사역	**서정길 권사**
양육사역	**윤지호 집사**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1월 14일 제24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COMMUNITY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Community Church

34617 8th Ave SW Federal Way, WA 98023
Tel (253)661-5436(fax), 227-1775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은 그 복을 혼자서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을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나는 지금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아.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한 후에 나가서 남을 도와야지 그런데 이 생각은 문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먼저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먼저 씨를 뿌려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길 원한다면 남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이웃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고통을 당한다면 동일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도와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의 문제와 필요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스트레스 탈출 법은 자신에게서 시선을 떼고 남을 돕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에서 남의 필요로 관심을 돌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어떤 씨앗을 뿌릴지 고민할 때, 어느새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58:7-8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췰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다하면 하나님은 항상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이 흘러들어오기만 하는 저수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강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받기만 원하고 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점점 썩어 악취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삶에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1:11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를 통해 남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흘려보낼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복이 흘러들어오고 우리 삶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흐르는 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창고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최고로 누리는 영적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눈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눌수록 더 채워지는 복입니다. 나눌수록 더 커지는 복입니다. 사이즈도 커지지만 내용이 더 좋아집니다. 복을 나누면 그 복에 사랑과 평화가 더하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지 않고 혼자 독식하면 복이 변질됩니다. 그 복에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불화가 더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누지 아니하고 혼자서 누리게 되면 복이 짐이 되고 복이 부요함이 되지 못하고 가난함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부자로 살아갑니다.

2007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수도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나눈 인사처럼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하시다면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에게, 세상으로 흘러 보내는 일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꾸만 흘러 보낼 때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흩어 나누어 베풀고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곱절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한 해 이 약속을 믿고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우리교회로 인하여 나아가 우리교회 성도님들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습관과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합시다.
2. 2006년 12월까지 적립된 선교구제비 $3,380을 밀알선교회 $1,000, 선원선교회 $1,000, 북한선교를 위해 $1,380로 나누어 지출하였습니다. 지원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년 심방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날자와 시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속 스캐너를 무명으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5. 우리교회에 맞는 예배처소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비전과 사역을 공유할 수 있는 예배처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자유교회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53) 661-5436, 227-177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690.00	
감사헌금:	$410.00	
주일헌금:	$10.00	
특별헌금:	$1,010.00	**합 계: $2,120.00**

중보기도 제목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많은 장애우들이 장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 선원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복주시고 저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선원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없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애쓰는 사역자들을 안전하게 도와주옵소서.